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우리 하나님(찬30/새14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유형석 집사 2부/장천경 장로 3부/윤대호 집사 4부/양경인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Mark Hayes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빌레몬서(Philem.) 1:1-25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4:43-54

말씀 Message ..... 1, 2, 3부..... Rev. Jame Suh **서동민 목사**

### Supreme Jesus 어게인!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3) 두 번째 표적: 믿고 가더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부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 Rev. James Suh **서동민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REST-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는 시간

REST - The Time to Lay Down Invisible Burdens



서동민 목사 / Rev. James Suh

봄이 오면 저는 따뜻해진 공기와 길어진 낮,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좋아합니다. 이 계절이 되면 마음들이 한결 부드럽게 열리고, 소망이 담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중에서도 한인 이민자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특별히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들은 매우 강인해 보입니다. 성실하고, 가족을 깊이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쉽게 내색하지 않고 견뎌내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그 안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자신의 삶의 무게만이 아니라, 역사라는 더 큰 무게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네 겹의 보이지 않는 상처 위에 세워진 듯합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상처입니다. 자유와 정체성을 빼앗긴 시대를 지나며 사람들은 조용히 인내하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생존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상처입니다. 가족의 이산과 삶의 파괴,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불안으로, 혹은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민의 상처입니다. 언어와 지위,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견뎌야 했던 깊은 외로움. 그 조용한 희생은 때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붕괴의 기억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험은 끊임없는 과로와 쉽게 가지지 않는 재정적 불안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한인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성실함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며, 희생 또한 단지 문화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생존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해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압박과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두려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깊은 치유는 어쩌면 이러한 한마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When spring comes, I like the warm air, the longer days, and the quiet feeling of a new beginning. In this season, hearts seem to open, and hopeful conversations seem to flow naturally. As a pastor, I often experience moments that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especially in conversations I share with Korean immigrants. On the surface, they appear very strong. They are diligent, deeply love their families, and endure almost any hardship without complaint. But when I pay a little closer attention, I always discover something deeper. Many are not simply carrying the weight of their own lives, but are also carrying the weight of history.

The stories of Korean immigrants seem to be formed by four invisible layers of wounds. The first is the wou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 time when freedom and identity were taken away, people learned how to endure quietly and survive, and that survival pattern sometimes continues today as perfectionism and a fear of failure. The second is the wound of war. Through family separation, destruction, and extreme poverty, they learned how easily peace can collapse, and that anxiety still remains today as a desire to control. The third is the wound of immigration. They laid down language and status, started again from the very bottom, and endured deep loneliness, and that silent sacrifice sometimes remains as an unexplained pressure on the next generation. The fourth is the memory of economic collapse. The experience that everything can disappear in an instant has left behind relentless overwork and financial insecurity.

When we understand all these wounds, the way we see Korean immigrants changes. Our diligence is not simply ambition, not expressing emotions is not indifference, and sacrifice is not merely a cultural habit. These are traces of survival learned across generations. The greatest gift we can offer is to understand, and to help both children and parents see the history of fear hidden behind pressure and perfectionism. Deep healing sometimes begins this way: "You have been carrying far too much for too long. It is okay to rest now." Just as our Savior always invite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서동민 목사

# Supreme Jesus 어게인! 빌레몬서 1:1-25

**1. R:**

-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무엇을 상기시키며 화해를 준비하게 하나요?

**2. E:**

-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심복'이라고 부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 관계 속에서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이야기를 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3. S:**

-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4. T:**

- 바울이 보여주는 화해의 모델에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바라보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 지금 붙잡고 있는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적용하기



선교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베델교회가 설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반세기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달려온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열방의 복음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파송/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30일(목)부터 5월 3일(주일)까지 개최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에게 안식과 재충전(Refresh)의 시간을 제공하며, 급변하는 선교 지형 속에서 새로운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영적 소통의 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만남과 교제의 장을 넘어, 선교지

의 생생한 사도행전적 역사를 온 성도와 공유하며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베델의 모든 지체가 열방의 간절하고 긴박한 복음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인 동시에,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성벽을 쌓고 기쁨의 손길로 선교사들을 맞이할 때 이번 대회가 진정한 영적 잔치로 승화되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선교적 부흥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건강하게 디아스포라 이민목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으며, 성도님들은 선교의 현장을 뜨겁게 가슴에 품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원규 장로

목회자 소개  
유치부, 아기학교

## 전소연 전도사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베델교회 유치부와 아기학교 사역을 꾸려가게 된 전소연 전도사입니다.

베델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매 주일마다 마주치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금은 낯설 법도 하지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매일 감사함으로 채워 가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 비전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특히 유치부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부의 모든 가정과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고사리손을 잡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가정들을 보며,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기도의 불꽃이 아이들 평생의 신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기학교를 통해서도 신앙의 걸음을 떼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정서적, 영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고 싶습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시작된다고 믿기에, 영적 골든타임인 유아기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고민과 기쁨에도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는 든든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겠습니다. 늘 무릎으로 앞서가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고 우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베델의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며 둘째,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베델 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훈련**  
전도폭발

#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갑니다

64차 전도폭발 개강예배가 2월 10일 저녁 7시 유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9명의 훈련자와 23명의 준훈련자, 그리고 21명의 훈련생으로 총 19개 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이신 최 집사님의 멋진 미소로 이번에도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실을 가득 메운 전도폭발 모든 참가자들은 잠깐의 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다시 모인 것으로 반가워하며, 송권사님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맛있는 카레로 더욱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새롭게 조성된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박경철 목사님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영의 양식도 채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에서 등불을 등경에 두는 마음으로 이번 학기도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훈련생들이 열심히 훈련하여 복음을 대히 전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는 동기를 들으며 더욱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9개 팀이 최소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며, 전도폭발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자, 준훈련자, 그리고 훈련생에게 각각 2명의 기도 후원자가 함께하게 됩니다. 126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함께 서포트해 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82차

임상훈련이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전도폭발 훈련자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뒤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64차 전도폭발 훈련과 82차 임상훈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번 훈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현 권사



**예배**  
베델 성가대

# 부활의 소망 메시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흔히 "메시아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연말이 되면 헨델의 메시아(Messiah)가 연주되며 이것은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메시아 공연을 보고 들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울림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던 그 순간들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질 때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던 그 장엄한 장면은 어린 마음에도 강한 인상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단지 성탄절을 위한 음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오라토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만,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승리로 나아갑니다. 총 3부로 구

성된 이 작품은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해 보면, 메시아는 오히려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이 담고 있는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라토리는 1742년 4월 13일 사순절 기간에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에서 자선 음악회로 초연되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단순한 성탄 음악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부에 이르면 음악은 더욱 극적인 긴장감을 띠니다. 오페라처럼 인물 간의 대화로 이야기를 전개하지는 않지만, 불규칙한 리듬과 날카로운 선율,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성의 변화는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헨델은 말이 아닌 음악 그 자체로 십자가의 고난을 증언합니다. 듣는 이는 그 소리 안에서 주님의 아픔과 사

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성탄의 분위기에 맞추어 1부 중심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는 이번 '고난주간저녁집회'에서 특별히 2부의 고난과 3부의 부활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힘있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연주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형직 목사



부설 사역  
BCA

# 놀이처럼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2년 한국에서 앨버트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다가올수록 미국,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캘리포니아에서 아이가 경험하게 될 학교생활과 그 안에서 접하게 될 가치관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BCA라는 학교와 그 학교가 추구하는 Classical Education의 개념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저희가 아이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방향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넘어서는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다섯 살이 된 저희 아이는 BCA Kindergarten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라 부모로서 처음 학

교에 보내며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학생 가족들과 모든 faculty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아이가 새로운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Teacher-Parents' Conference날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를 위해 해주신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느끼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걱정하거나 외부에서 들리는 여러 이야기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아이를 궁극적으로 키우시는 분은 부모도, 학교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과 교리를 집에서도 놀이처럼 흥얼거리며 찬양합니다. 아직 다섯 살이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학교생활 속에서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이와 함께 자라나 훗날 귀한 복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저희 가정은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혜리 집사



**Bethel**  
Classical Academy

성례  
유아세례

## from My Parents Prayers to Our Promise!



I first came to Bethel Church when I was two years old and attended faithfully until I left for college. Now, here I am, a mother myself, bringing my baby to the same church. I am filled with joy and gratitude to God that my son Brayden will be dedicated at the church where I grew up.

After college, I worked jobs that required Sundays, so attending church was not set as a priority. But when Brayden was born,

I found myself wondering: How do I raise this child? What kind of parent should I be?

That's when memories came flooding back, such as Sunday school, AWANA, VBS, and all the church programs my parents faithfully brought me to. I remembered how they devoted themselves to Bible study and prayer groups, not just for themselves, but for us. Their example spoke volumes.

The Lord, who prepares us through prayer, blessed our family with Brayden as a precious gift. In gratitude for this blessing, my husband and I decided to pursue baby dedication as a commitment to grow into more mature, faithful parents.

As Brayden grows, we pray he will come

to know God's love deeply and become a child who shares that love with others. Rather than raising him according to our own ambitions and preferences, we commit to seeking wisdom from God's Word, bringing even the smallest matters to the Lord in prayer, and guiding him to grow in righteousness.

We promise to keep our eyes fixed on God alone and to be a family that brings Him joy.

Lawrence Chu/Heidi Cho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감: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위섭: 조요셉

####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 사역광고

# 베델 MIT 대학

배움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62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MIT 대학 불학기가 개강합니다. 신앙, 건강, 교양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10개의 유익한 강좌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같은 세대의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3주로 구성된 강의는 최고의 강사진께서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MIT 주방팀에서 엄선된 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일부 과목은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 ▶ **강좌:** 시편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4계절, 노래교실, 한글서예, 한국화, 서양화, 손 뜨개반, 생활한의학, 힐링피트니스, 손 피아노, 시니어인지 뇌크리에이션, 스트레칭
- ▶ **프로그램 일정**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예배  
오전 11시 30분-12시: 스트레칭  
오후 12시-12시 40분: 점심  
오후 12시 40분-2시: 과목별 수업
- ▶ **접수:** 3월 1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
- ▶ **기간:** 3월 6일(금)-6월 5일(금) 13주만
- ▶ **문의:** 김재훈 장로(714)390-4967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월)	3/8:	①부-조부연	②부-윤태경	③부-정병철	④부-김유리
	3/15:	①부-이상원	②부-이봉윤	③부-이상노	④부-이가현
	3/22:	①부-이승호	②부-주진철	③부-이명환	④부-정용익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3월)   강단꽃(3월)	3/7: 김종철 3/1: 선상균, 왕예찬, 이나미	3/14: 박영선 3/8: 선상균	3/21: 김지광 3/15: 윤미경, 한동희	3/28: 류정빈 3/22: 배사라
----------------------------------	--------------------------------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규연(소아과),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Charles Oh(이비인후과), 간호사-장한나

###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썸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 주일인 3월 8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주일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됩니다)

◆ **세례/입교 신청**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3월 29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이수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2월 15일(주일)-3월 1일(주일), 홈페이지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살롬채플  
문답 일시/장소: 3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봉사자 모집** 베델교회 설립 50 주년을 맞아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에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국내외에서 오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사랑으로 맞이할 의전, 접수, 의료, 차량, 식사, 장식 등 다양한 분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컨퍼런스 기간/문의: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화요큐티모임 올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림, 내 이야기가 당신을 올림'. 올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본당 앞 부스 및 큐알코드로 소그룹 나눔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접수/문의: 오늘 3월 1일(주일)까지, 박은혜 권사 (949)910-0327  
첫 모임/장소: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EM채플 \*차일드 케어 제공



◆ **말씀플러스 모집** 봄학기 베델 말씀플러스가 시작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월 22일(주일)-3월 1일(주일)까지  
신청 방법/문의: 교회 홈페이지 및 QR 코드, 이승호 집사 (714)510-1364  
훈련 일정: 3월 11일(수), 3월 12일(목)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또는 목요일 오전 총 10주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에서 등록 받습니다.  
일시/장소: 3월 6일(금)-6월 5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문의: 전정례 권사(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

◆ **한어중고등부(CIM) 입당감사예배 및 학부모 모임** 아름다운 예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입당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앞으로 다가올 예정된 행사와 훈련 프로그램, 수련회 일정, 그리고 뉴멕시코 여름 단기선교 계획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3월 1일(주일) 오전 11시, 살롬채플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2026-27학년도 신입생 등록**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교육을 통해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모집 대상: TK-9학년 (2026년 가을학기 기준)  
TK 지원 자격: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가 되는 학생  
문의: Admin Office (949)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선교사역 안경기부**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으로 배포할 미사용 새 제품 선글라스를 기부해 주세요. (Used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 주일-코트야드 Lost and found 부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주중-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기간/문의: 3월 15일(주일)까지, 김윤근 집사 (949)966-1135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인턴(2세)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3일(월)-7월 16일(목), 박성남 장로 (949)697-8531



◆ **큐티인 3월호 판매** QTin 3월호가 나왔습니다. 매 주일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최형국/서수지 집사 가정에 딸 최서은(Sophie)이 지난 2월 3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박영자 성도님(진혜진 권사의 모친, 진교육 집사의 장모)께서 2월 21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유상 장로님(김진애 권사의 남편)께서 2월 24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WANA(어와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li> <li>■ <b>중,고등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li> <li>■ <b>한국학교:</b>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 <li>■ <b>아기학교:</b>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중 새벽기도회(화-금):</b> 오전 5시 30분, 본당</li> <li>■ <b>헵시바 새벽기도회(토):</b>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 <li>■ <b>베델 수요저녁예배:</b> 오후 7시 30분, 본당</li> <li>■ <b>예살금요일예배(청년):</b>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 <li>■ <b>주일 레위기기도 모임:</b>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행인:</b> 김한요 담임목사</li> <li>■ <b>편집장:</b> 김경자 권사</li> <li>■ <b>기자:</b>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 <li>■ <b>사진 기자:</b> 박성근 장로, 최효정 집사, 차규양 장로</li> <li>■ <b>번역:</b> Grace Yi 전도사</li> </ul>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 Supreme Jesus Again! Philemon 1:1–25

**1.** R:

- As Paul prepares Philemon for reconciliation, what does he first ask him to recognize and reflect?

**2.** E:

- When Paul calls Onesimus “my very heart,” what do you think he means, and what does that reveal about his feelings?
  
- Why might it be important to try to understand the story behind someone’s actions in a relationship?

**3.** S:

- Reconciliation can feel difficult—why do you think that is, and what is the hardest part for you to let go of?

**4.** T:

- Looking at Paul’s example, how do you think God views the process of restoring broken relationships?
  
- In your own life, what might it look like to genuinely entrust a relationship or conflict to God?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